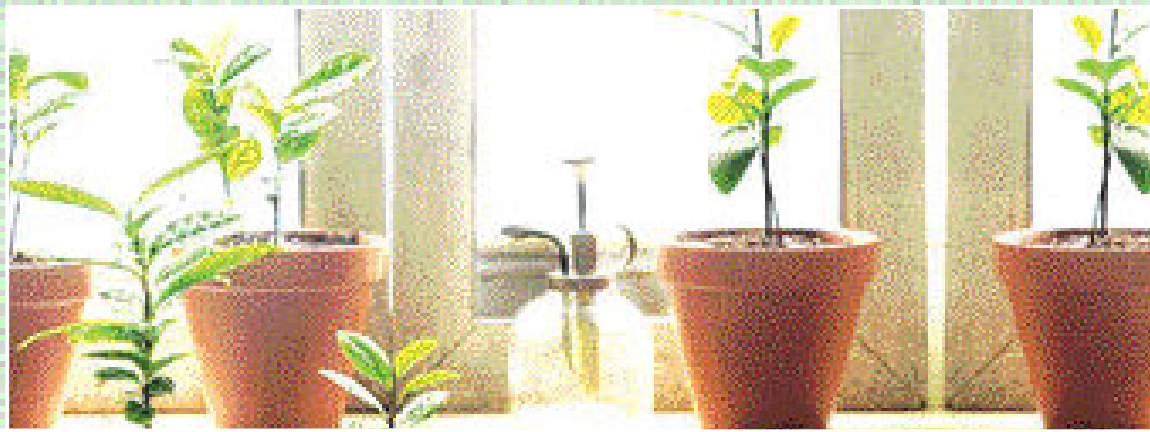


트렌드 & 스타일

녹차 마시기만 하니?
씻고 바르면 깔끔해!



녹차가 웰빙음료에서 팔방미인 미용 제품으로 변신하고 있다. 웰빙 열풍으로 커피대신 녹차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녹차 케이크,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리제 등 식품업계는 녹차 바람이 불고 있다. 미용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녹차에서 떫은 맛을 내게 하는 카테킨이 암과 노화를 예방하고 중금속을 없애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이어트 식품과 미용 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녹차 미용법을 이용해 올 겨울 건강 미인이 돼보자.



• 도음밭 및 사진 제공 오설록 티하우스(www.osulloc.co.kr)

너무 많이 마시면 되레 속 쓰리고 소화장애

■ 녹차 잘 마시는 방법

녹차는 '찬 물' 보다는 '따뜻한 물'에 마시는 것이 좋다. 녹차의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 성분은 60~70도 물에서 잘 우려나기 때문이다. 물을 끓인 후 식혀서 우려내도록 한다.

몸에 좋기로 소문난 녹차.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주 마시는 것은 금물이다. 녹차

의 카페인 성분이 몸에 좋은 마네랄 성분까지 소변으로 배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녹차에 있는 타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녹차는 약물대사를 방해하므로 약과 함께 마시지 않도록 한다. 또 커피의 반 정도 되는 카페인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이나 임신부의 경우 하루에 1~2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민감한 피부에도 오케이(OK)!

녹차에는 마이옴플라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든다.

비타민 C와 E가 풍부해 피부를 하얗게 가꿔주고 타닌 성분이 모공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 피부를 탭 탭하게 만든다. 타닌 성분은 염증을 방지하고 세균활동을 억제해 여드름으로 인해 염증이 심하거나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도 효과적이다. 우려내고 난 녹차 티백을 여드름 부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피부 염증을 줄일 수 있다.

녹차를 우려고 남은 티백이나 녹차 잎 찌꺼기를 모아 말린 후 밭에 담아 옥조에 넣고 우려내면 피로가 사라지는 녹차 목욕을 즐길 수 있다. 비타민 C가 풍부해 거칠어진 피부도 부드러워진다.

비듬, 탈모에서 변비 예방까지

녹차잎의 폴리페놀 성분은 위와 소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에 효과적일뿐 아니라 천연 헤어 제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삼푸 후 녹차물을 이용해 헹구면 머리결이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생기면서 비듬이 줄어든다. 녹차잎의 타닌 성분은 모공을 조여 탈모에도 효과적이다. 팍팍 새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녹차로 S라인 몸매를

1잔(100g)당 3kcal로 칼로리가 거의 없는 녹차는 마셔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 녹차 속에 함유된 카테킨, 미네랄 등의 성분이 식욕을 억제해 주고, 체지방의 대사를 도와 군살을 몰아내 준다. 운동 전 후에 마시면 지방 연소를 도와줘 더욱 효과적이다. 음식은 평소의 3분의 1만 줄이고 녹차를 3~4회씩 수시로 마신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살이 빠지면서 주름은 늘고 탄력이 떨어져 피부노화가 오기 쉬운 만큼 녹차를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예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카테킨 성분이 피부노화를 막기 때문이다.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 서클렌즈 함부로 끼면 큰일나요



하루 5시간 이상 끼지 말아야 눈화장 지을땐 렌즈 먼저 빼길 눈도 50분 일하면 10분 쉬어야

'눈이 예뻐야 미인'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람의 얼굴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렌즈의 테두리에 색깔을 넣어 눈동자를 크게 보이게 하는 '서클렌즈'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눈에 건강까지 더하고 싶다면 서클렌즈를 끼는데 주의해야 한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렌즈가 실명을 초래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3년 가까이 서클렌즈를 끼은 이모(25·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얼마전부터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다. 병명은 '각막 궤양'. 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병이다. 무리한 서클렌즈 착용이 가져온 병이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클렌즈는 일반 교정용 렌즈보다 두껍고 거칠어 눈에 자극을 주고, 산소 투과도도 떨어지는데다 심한 경우 색소가 흘러나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안과 전문의 이재범 교수는 저서 '천금같은 우리 눈 100세까지'(헬스조선·9천800원)에서 올바른 서클렌즈 착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가 권하는 렌즈 사용법을 살펴보자.

■ 서클렌즈 사용 할 때 주의할 점

눈에 직접 닿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최우선. 전용 세척제를 이용해 소독하고 보관한다. 안과에서 렌즈 사용이 관용인지 검사를 받고, 안정성이 검증된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또 되도록 오래 착용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유리하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하고, 하루 5시간 이상 끼지 않도록 한다. 통증이나 시력 감소, 눈부심, 충혈 등 증상과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황사가 많은 봄이나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할 때는 되도록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먼지가 렌즈에 붙어 흡집을 내거나 각막을 자극해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예쁜 눈, 건강한 눈 이렇게 지키자

난방 기구를 사용하고,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겨울에는 습도가 낮아져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기 마련이다. 눈에 이물감이 심해지고 뻑뻑함 때문에 고생이라면 '인공 눈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람에 따라 필요한 정도가 다르므로 안과 전문의 진료를 거쳐 투약한다.

건강한 눈을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도 중요하다. 이 교수는 "한 번 나빠진 눈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없지만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한다면 건강한 눈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컴퓨터 모니터나 TV를 보거나 10분 정도 쉬어주고,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자주 깜빡여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헤어 드라이어는 렌즈 착용용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을 하는 여성은 렌즈를 빼고 눈화장을 지우도록 하자. 세균 번식이 많은 식염수보다 전용 세척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 녹차 알차배기 이용법

라면 끓일 때 녹차 넣으면 맛 깔끔

▲라면 먹을 때 녹차를 넣으면 녹차가 기름기를 흡수해 맛이 깔끔해지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부은 눈을 가라앉히고 싶다면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녹차 티백을 눈두덩이에 올려 놓는다.

▲무좀이 있는 발에는 진하게 우려낸 녹차물에 발을 담근다.

▲녹차를 마시고 난 후 티백은 버리지 말고 모았다가 한 번 더 우려 실거지 할 때 헹글물로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있다.

▲한 번 우려낸 녹차잎을 잘 말린 뒤 베개 안에 넣어두면 녹차의 은은한 향이 머리를 맑게 하고 불면증을 치료한다.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districts in Gwangju. Includes sections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hindong), '인애공인중개사' (Inaebong), '일기공인중개사' (Ilgibong), '민음공인중개사' (Minumong), '21세기건설투수회사' (21st Century Real Estate),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and '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 (Central City Wedding Convention).